

한라시론



한 동 군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2년도 중국어 교사 선발 TO 확대를 건의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도 중등교원 선발 예정 공고에 중국어 과목 교사의 전체 선발 인원이 ‘0명’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어 교사 선발을 시작한 1997년 이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건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 교육은 필수고, 미래엔 중국어가 대세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편집국 25시

치솟는 반중(反中)정서 속 중국어 교육에 대한 단상

유망 언어로 꼽혔던 중국어 기피의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요즘 10대 학생들이 한자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이 원인이다. 일부 교사들 말로는 학생들이 성조나 간제자를 낯설어하고, 또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적다보니 다른 과목에 비해 내신성적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필자는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굳어진 반중정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닌까 싶다.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유튜브나 SNS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갑지 종주국 논란’, ‘알몸김치 사건’ 등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다 보니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았나 생각된다. 뉴욕타임즈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반중정서가 반일감정을 넘어섰

다’고 보도할만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 열풍이 불었고,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가 중국이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에 이런 현상이 매우 우르스롭다. 필자 역시도 이러한 사태를 실감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중국은 왜 우리한테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난감할 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더 중국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먼저 중국은 좋은 값싼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2013년부터 우리의 최대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고, 홍콩을 경유한 수치가 지 계산한다면 전체의 33%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에 중국 또한 1999년 이후부터 대(對)한국 수출은 미국과 홍콩,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중국의 4대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역시 작년 한 해 4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사드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기(奇)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서로 좋으면 협력하고 싫으면 등지고 살 수 있는 운명인가? 우리는 일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지만 중국산 제품은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다. 주변에 중국산 제품이 아닌 게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반중정서가 치솟는다고 하더라도 불매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인식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 공생하면서 협력 속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그리고 중국어는 필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설

심각한 주차난, 행정 ‘의지’ 다시 다지자

주차난이 어제 오늘의 일 아니다. 행정이 해법으로 차고지증명제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나섰지만 아직도 주차난을 겪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심각한 도심지·주택가 주차난이 대폭 해소되려면 공영주차장 확대와 기존 주차장 회전을 제고 등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한다. 제주도가 최근 ‘주차정책 도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9명이 주택가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주택가 주차문제에 매우 심각 46.9%, 다소 심각 39.3%로 응답자 86.2%가 ‘심각하다’고 답을 낸 것이다. 주차난 해법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확대 65.6%, 부설주차장(학교, 종교시설 등) 개방지원 30.9%,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30.7%, 자기차고지 지원사업 확대 28.8% 순이었다. 행정이 그간 벌여온 주차난 시책들에 대한 소기 성과를 부인할 순 없다. 매년 자기차고지갖기 차

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조성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지역에 따라 일정 효과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여전히 주차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무려 10명중 9명이 주택가 주차난을 호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뒷받침한다. 행정은 주차장 신설 사업을 읍·면보다 동지역을 우선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벌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확대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공영주차장 복충화사업은 일부 반대로 중단할게 아니라 다수 이용자들을 위해 조기에 강행돼야 한다. 공영주차장내 비양심 장기주차, 건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불법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해 주차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기존 주차시설도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서 무슨 해법을 찾을 수 있나. 행정은 주차난 해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례행사처럼 태풍 때마다 겪는 물난리

제14호 태풍 ‘찬투’의 생채기는 바람도 쉴지만 엄청난 양의 비를 뿌렸다. 나흘동안 내린 비가 무려 1000mm가 넘었다. 마치 하늘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말 그대로 물폭탄이다. 이처럼 제주 전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물난리가 벌어졌다. 주택과 도심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다.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태풍 피해가 를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가 제주도 동쪽으로 비껴 지날 때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지난 17일 오전 6시 현재 일최대 순간풍속은 삼각봉 27.4m/s, 지귀도 25.7m/s, 마라도 23.5m/s, 제주시 22.0m/s의 강풍이 몰아쳤다. 바람만 쉰 것이 아니다. 강풍과 함께 굉장한 비를 퍼부었다. 지난 13~17일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한라산 진달래밭은 1165mm였다. 이어 한라산 남벽 994mm, 삼각봉 908mm, 산천단 546.5mm, 서귀포 509mm, 선흘

476mm, 제주 322.9mm를 기록했다. 태풍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제주를 덮치면서 피해가 적잖았다. 제주시 도남동 성환아파트 상가와 제주시 다호마을 등이 물바다로 변했다. 월동무 추산지인 서귀포시 성산지역의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태풍 ‘찬투’는 제주지역이 태풍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삶의 보금자리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심지 도로 곳곳이 물바다가 됐으니 말이다. 비단 태풍 때만 이같은 물난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렸다면 곳곳에 물난리가 빚어진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태풍 때마다 이런 침수피해를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제주도의 보다 세밀한 재난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알다시피 태풍은 갈수록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in

확진자 수는 2단계인데 왜 3단계인가

도, 거리두기 적용 기준 외면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속하는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10명을 밑돌고 있으나 2단계가 아닌 3단계로 전환. 이달 들어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10명 이내로, 7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기준을 배제하고 현행 4단계에서 3단계(23일~10월 1일)로 완화. 한 자영업자는 “감염확산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파산위기에 처한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 한다”며 “제주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역이 아쉽다”고 호소연. 고대윤기자

밤잠 깨운 제주공항 소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새벽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소음이 발생.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0시 3분쯤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국제선 화물기가 현지 기상악화로 제

주공항 관제탑으로 회항을 요청하고, 0시10분쯤에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던 다른 국제선 화물기가 제주공항 착륙을 요청해 잇따라 화물기 2대가 제주공항에 착륙. 공항공사 관계자는 “제주공항엔 커퍼타임(야간 운행통제 시간)이 없어 음급 상황에 착륙하는 항공기가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 이태윤기자

추석 사랑나눔 창구 ‘풍성’

○…서귀포시가 지난 1~19일 전체 읍면동에서 ‘추석맞이 사랑나눔 지원 창구’를 운영, 현금과 물품을 받아 지역의 시설과 소외계층에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 시는 이 기간에 기관, 기업, 단체인 등으로부터 2억3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45곳과 4492가구에 이를 전달하고 위로. 김태영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져 시민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연. 백귀탁기자

학교폭력 단상



오 은 지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ejoh@halla.com

올해 초 이른바 ‘학폭(학교폭력) 미투’ 파문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술하게 화자됐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논란에 얽히면서 청소년들의 시선이 향했다. 개인적으론 종종 집에서도 민감도가 높아진 아이들과의 대화 주제가 되면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발표되면서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운다. 수년간 제주지역 학교폭력 실태조사(1차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자연령화 추세,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유형 피해 집중, 학교밖 폭력 비중 증가가 눈에 띈다. 실태조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두차례 실시(4월 전

수, 9월 표본)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9월 한 번(전수)으로 축소 시행됐다.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지난해 1.6%·0.6%·3.6%에서 올해 증가해 2.1%·0.8%·4.1%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2.2%·0.9%·5%)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4년간 피해응답률은 중학생 1% 안팎(2018년 0.9%, 2019년 1.1%, 2020년 0.7%, 2021년 0.7%), 고등학생 0.5% 안팎(0.5%, 0.4%, 0.3%, 0.4%)이지만 초등학생은 3~5%(3.4%, 5%, 3.1%, 4.8%)를 보인다. 특히 제주교육당국은 올해 언어·신체폭력 증가를 두고 학생들의 등교·원격수업 반복과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생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이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이 시작돼 학교 일상이 회복되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자연령화 추세의 고착화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예방 대책 발굴에 대한 보다 진전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부 고

현충훈 아버지 연주현공 문준(공군 예비역 대령·향년 67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19일 19시 2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9월 24일(금요일) (* 조문: 9월 23일(목) → 오전 11시부터 가능)
- ▶발인일시: 2021년 9월 25일(토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6빈소
- ▶장 지: 양지공원 → 2021년 9월 27일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부 인 김 미 자
아 들 현 충 훈
창 훈
경 훈

※ 연락처 : 김미자 010-8224-5445
현창훈 010-8205-7655

부 고

고태형·고태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어머니 나주김씨 경희(향년 95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21일 04시 15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9월 24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1년 9월 25일(토요일)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3일 7빈소→24일 3빈소
- ▶장 지: 양지공원 →충훈묘지

아 들 고태형
광 효 며느리 강미경
딸 고태순
목 자
정 자 사 위 현봉재

※ 연락처 : 고태형 010-5536-6854
고태순 010-2699-1732

부 고

김부찬(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어머니 연주현씨 문아(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19일 21시 5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9월 23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1년 9월 24일(금요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별관
- ▶장 지: 돈내코 선영

아 들 김부익 며느리 김영순
부 찬 김원복
부 일 정형숙
부 현 현정자
부 삼 양윤실
딸 김명순 사 위 강승익
인 순 신용대

※ 연락처 : 김부찬 010-6636-3164
김부일 010-2728-9076
김부현 010-9678-0365
김부삼 010-9840-5388

부 고

김광수(前 교육의원) 어머니 제주 고씨 정숙(향년 88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19일 07시 30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9월 23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1년 9월 24일(금요일) 오전 5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 ▶장 지: 양지공원

남 편 김두언(敍)
아 들 김광수 며느리 김순선
광철(敍) 홍양진
명 신
딸 김애자 사 위 윤민일
애심(敍) 강신원(敍)
은희 강순만(敍)
춘희 현필생
민희

※ 연락처 : 김광수 010-3697-199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성욱(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9월 23일

부 인 이옥춘
아 들 김충우 며느리 김정자
충의 고희선
딸 김순아 사 위 고익수
순자
은영 박종철